

청년 한 명 한 명의 길을 만드는 2025년 청년 고용정책

- 2025년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 제2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월 22일(수) 10:30,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청년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최초로 '2030 자문단'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자문단원들은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

정부는 올해 ①졸업예정자, ②쉬었음 청년, ③직업계고생을 대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 개입'하여, 취업준비가 장기화되고 쉬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정부는 연초 전국 120여개 대학을 통해 졸업예정자 약 25만명의 취업준비 상황과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상반기 중 약 5만명에게 1:1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5.8만명,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4.5만명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쌓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40여만명의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는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심리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불안감이 큰 청년들에게는 고용센터의 심리상담(6.4만건)과 직업진로지도(CAP@)도 확대(전년 대비 +11.2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부모, 친구들이 쉬었음 청년에게 정책 참여를 권유하고 회복 과정을 함께하는 기반도 구축한다.

직업계고 청년은 전공과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하거나, 근로 여건 때문에 취업 후 쉬었음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졸업예정자 6만명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진로·직업상담(1.5만명), 신산업 분야 특화 훈련(3,600명), 직업계고 직무 특화 일경험(신설, 500명)을 실시한다. 또한, 졸업 직후 취업하는 2만명에게는 초기 2년간 최대 98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일하며 직장에 정착하도록 돕는다.

[제2기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된 점이 주목받았다. 예를 들어, 특성화고 용접 기능대회에서 수상하고 조선업 경력 10년 차인 직장인, 소년원 직업훈련 담당 경력자, 7곳 이상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진 10대 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자문단은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활동 결과를 유튜브 등으로 공유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다양한 삶과 밀접하게 맞닿은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채용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코로나 학번이 졸업하면서,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오늘 제기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다. 기업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5년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계획
2.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요
3.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발언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구현경 (044-202-7440)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오지영 (044-202-7423) 류성진 (044-202-7442)



붙임 1**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계획**

- ☐ 개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의거 청년고용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
- ☐ 일시·장소: '25. 1. 22.(수) 10:30, 로얄호텔 서울(명동소재)
* 호텔 3층 그랜드볼룸
- ☐ 참석: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
* 고용노동부 장관(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22명
- ☐ 안건: (보고)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
- ☐ 참고사항
- 특위 개최 전 제2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 진행
→ 자문단원 특위 참관
- ☐ 세부 계획(안) ※ 행사 전체 공개

시 간		내 용	비 고
10:30~10:35	(5')	개회 및 참석자 안내	
10:35~10:40	(5')	장관 인사말씀	
10:40~10:50	(10')	안건 발표 ▶ '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	
10:50~11:28	(38')	토 론	장관 주재
11:28~11:30	(2')	장관 마무리 말씀	
11:30~		오찬	

☐ **목적**

- 기업·학교·정부 등 사회구성 주체와 민간 전문가가 청년실업 해소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 **운영 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고용노동부 예규 제111호)

☐ **기능 및 역할**

-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 평가(법 제4조)
 -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 * 청고특위 의결 후 청년고용의무(청년비율 3%) 미이행 기관 명단공표
 - ▶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 **구 성: 위원장 포함 25명 이하로 구성**

- 현 구성: 위원장 포함 총 22명
- 당연직 위원(12명): 위원장(고용노동부장관) 1명, 관계중앙행정기관 차관 5명, 경영계 대표 2명, 학교교육협의체 대표 4명
- 기타(10명): 민간전문가 5명, 청년위원 5명

☐ **위촉권자: 고용노동부 장관**☐ **임 기: 위촉일로부터 2년 (연임 가능)**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코로나 학번 청년들은 취업에 대해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는 경기여건이 어렵고 불확실성도 커,
기업들의 청년채용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오늘 특위 위원님들과 신임 자문단원분들을 모시고,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 상반기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약 55만명의 청년들이 관건입니다.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120개의 고용센터에서
이 청년들에게 최대한 접촉하여
취업준비기간을 줄이고,
쉬었음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취업 준비로 불안해하는 청년들에게
고용센터 상담과 직업심리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들이 기업이 원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5만 8천명에게 일경험을,
4만 5천명에게 첨단분야 훈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쉬웠음 청년의 경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이들에게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부모, 또래 친구들이 함께 나서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직업제고 청년에 대해서는
특성을 고려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2만명에게는
교육부와 고용부의 근속장려금을 연제 지급하여
초기 2년간 안정적으로 일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위 위원님들과 자문단원분들은
앞으로의 청년고용 정책방향과 더불어
주변 청년들의 상황과 어려움, 정부에게 바라는 점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울여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